



민선5기 4년 임기가 시작된 1일, 강운태 광주시장(왼쪽)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취임식에서 오른손을 들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 그리고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해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각각 선서하고 있다. /최현배·김진수 기자 choi@kwangju.co.kr

돈에 눈 먼 상아탑

교수가 장학금 대가 학생에게 돈 받아

역대 연구비 횡령 등 대학 비리도 넘어

대학 사회의 비리가 도를 넘었다. 연구비를 빼돌리거나 기자재 구입비를 부풀리고, 학과 예산을 유용한 교수들이 검찰과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정해주고 장학금 중 일부를 받아내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짜고 연구비를 무한정 횡령한 이들도 있었다.

조교나 시간강사를 유령 연구보조원으로 급조해 개설한 통장으로 연구비를 빼낸 사례도 있었으며, 거액의 '부정한 돈'을 유혹비로 탕진하거나 빚을 갚는 데 써 경찰까지 경악하게 한 교수들도 사법처리됐다.

광주북부경찰은 1일 학과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남대 지리학과 박모(39) 교수와 같은 학과 전조교 박모(32)·시간강사 안모(4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등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대 미술대학 유모(47) 교수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년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조교와 시간강사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게 하고 보조원 통장에 입금된 연구비 가운데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교였던 박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년간 학과 법인 카드와 통장으로 유혹업소·안마시술소 등에서 4000여만원 상당을 결제했으며, 안씨는 지인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서점 등에서 책을 산 것처럼 속여 4000여만원을 이른바 '카드깡'한 혐의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2008년 2학기 한 학생에게 좋은 성적표를 주 장학금을 받게 한 뒤 30만원을 받는 등 장학생이나 공모전 입상 학생에게 수십만원씩 모두 2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리학과 박 교수는 "절차상의 착오일 뿐 사적인 횡령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미술대학 유 교수는 취재자가 6차례 이상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

장에서 연구비를 빼돌린 순천대 반모(56·미래전략신소재공학과), 손모(59·생물환경학과) 교수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교수 4명, 공모한 연구기자재 납품업자 2명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교수들이 3년여 동안 사취한 연구비는 무려 14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반 교수는 친형이 운영하는 납품업체와 짜고 무려 11억원을 횡령했으며, 다른 교수는 지도학생이 차린 납품업체와 공모해 연구비를 도둑질했다.

일부 교수는 공모한 업체로부터 회사 명의의 통장을 받아 수시로 현금을 챙기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교수채용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진성 화대 이모(53) 총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 총장은 같은 학교 사무국장, 행정실장 등과 함께 2008년 A교수 등 4명으로부터 1인당 1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동부채본부=김은종기자 ejkim@

민선 5기 시작됐다 광주·전남 단체장 일제 취임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장만제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한 광주·전남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이 1일 일제히 취임식을 열어 변화와 혁신을 약속하며 민선 5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2·3·4·5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시정 목표로 설정한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했다. 강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1995년 9개월의 짧은 광주시장의 임기를 마치고 떠난 뒤 국정참여와 정치경험을 쌓아오면서 오랫동안 광주의 미래를 구상하고 준비해왔다”며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어 새롭게 크게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으나 광주의 꿈은 더 크고 미래는 더 웅장해야 한다”며 “민선 5기 광주시는 민

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서구청장을 제외한 4개 구청장과 함께 광주공원 현충탑과 4·19기념탑,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이날 오전 전남도청 감대중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박 지사는 취임사에서 “지금까지 무엇이 전남을 사람이 떠나는 땅으로 만들었고

무엇을 해야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분석했다”며 “민선 5기에는 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는데 사용하고 낙후를 변형으로 바꾸자”고 말했다.

박 지사는 논란이 일었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도민 모두 영산강이 더 좋은 강으로 우리 곁에 있기를 바랄 것”이라며 “지금 영산강을 방치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고 사업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같은 날 취임한 장만제 전남도교육감은 취임사에서 “변화와 개혁만이 위기의 전남교육을 희망의 전남교육으로, 자랑스러운 전남교육으로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수업의 질 향상, 투명한 예산편성과 수업 등 통해 신뢰받는 전남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김지을·박진표 기자 chadod@

여야,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폐지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지난 4월 ▲구의회 폐지 ▲시·군·구 통합 지원 ▲읍·면·동 주민자치기구 출범 등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넘겼다.

하지만, 법사위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30일까지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노골

적으로 구의회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부산·서울·인천 등 특별·광역시에서 다수의 기초의원을 확보하게 되자 구의회를 폐지할 경우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민주당은 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을 통해 특별법안 상정을 막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입장이 난처해졌다. 자신들의 텃밭인 통합청원시(기존 창원·마산·진해)가 1일 출범했음에도 특별법안의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안전티브 제공이 어렵게 된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두 당 원내대표와 특위는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법안 13조의 '구의회 폐지, 구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구의회 개편 방안 마련을 다음 정권 때인 2013년 5월까지 미룬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림

'종교칼럼' 필진 바뀝니다

종교와 사회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온 광주일보의 '종교칼럼'은 개신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들려주는 수행과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매주 금요일 17면 오피니언면에 실리는 종교칼럼이 2일부터 새 필진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종교칼럼에 변함 없는 관심 바랍니다. <가나다 순>



◇송정몽 목사(광주신성교회 담임목사)
▲호남신학대학교 졸업 ▲군선교회 광주지회 총무 ▲광주기독교단 협의회 회장



◇시몽 신부(정성백양사 주지)
▲백양사 승가대학 졸업 ▲제주 법화사 주지 ▲제주 관음사 주지직 무대행



◇이덕운 교무(광주교당 금터원 교무)
▲마산교당 교무 ▲원불교 중앙총부 총무부 ▲광주교당 주임교무



◇조영대 신부(보성성당 주임신부)
▲북동주교좌성당 주임신부 ▲안셀모대학 성사신학 석사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

光州日報社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렷디로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과 교육의 요망!
광신대학교
법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제55회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축제 입상자 발표

▶ <http://art.kjmedia.co.kr> 참조

여름의 조각들
더불어 풍운 바다와 함께 행복찬 기억을 선물하겠습니다.
LAWN B&B 리프트앤리이어빌딩사